

한국 실크로드연구의 현황과 전망

김현주* · 배경진**

目 录

1. 실크로드란?
2. 연구현황
3. 연구전망

1. 실크로드란?

실크로드는 기원전 8-7세기부터 오랜 역사를 통해 다양한 물자와 문화가 전파, 교환되고 교류하는 공간을 의미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지금까지도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었기에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가장 낯선’ 이름이기도 할 것이다. 실크로드란 무엇인가? 실크로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리키는 공간과 역사는 어떤 것이며, 그리고 시간적·공간적으로 어떤 기능을 갖는가?

실크로드(Silk road)란 단어는 19세기에 독일 지리학자 페르디난드 폰 리히트호펜¹⁾이 중국과 중앙아시아, 인도 그리고 지중해를 연결하는 일련의 긴 무

* 韓國外國語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教授, 본 연구는 2015년 8월 돈황트루판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완한 것이며, 2015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비지원을 받아 저술되었음.

**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碩士科程

1) Ferdinand von Richthofen(1833-1905). 그는 1869년-72년에 중국 각지를 답사하고 1877년부터 1912년까지 전5권의 『중국(China)』을 저술하였다. 그는 이 책 제1권의 후반부에서 동서교류사를 개괄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중앙아시아를 경유해 씨르다리아(Syr Dar'ya, '다리야'는 '강'이라는 뜻) 강과 아무다리야(Amu Dar'ya)강 사이에 있

역루트를 ‘die Sedenstrassen’이라 처음으로 칭하면서 시작되었다.

실크로드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살펴보면, 실크로드는 ‘중앙아시아 내륙을 통과하는 고대 동서교역로’나 ‘내륙 아시아를 횡단하는 고대 동서 교통로에 대하여 근대에 이르러 주어진 아칭’으로 정의되고 있다.²⁾ 그 의미만으로 보면 ‘실크로드’는 ‘내륙을 통과하는’ 육상로나 교통로로 해석할 수 있다. 21세기에 이르러 이 ‘실크로드’에 대한 담론이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공간 개념에 대한 재해석에서 출발하여 실크로드가 갖는 원래 의미와 범위를 궁구하면서, 실크로드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재해석이 현대 인류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것이며,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를 재고하고 있다. 최근 각 학계나 기관에서 ‘실크로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각 학계나 기관에서 ‘실크로드’라는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현대인들은 마치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슬로건’이나 ‘개척’을 위한 용어로서도 사용하고 있으며, 경제·역사·사회·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이에 ‘실크로드’에 대한 ‘새롭고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에서의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로는 정수일의 ‘새로운 정의’를 눈여겨 볼 수 있다. 정수일은 실크로드의 ‘새로운 이해’를 제기함으로써, 실크로드에 대한 기존관념을 뛰어 넘어 공간적 배경을 한반도에까지 연장하면서, 실크로드에 대한 新개념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그는 실크로드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실크로드(Silk Road)는 인류문명의 교류가 진행된 통로를 범칭으로 한다..... 실크로드란 원래 중국 비단의 유럽 수출로에서 연유한 조어(造語)였으나, 그 개념이 확대된 결과 원뜻과는 다른 하나의 상징적인 雅稱으로 변하였다. 요컨대 실크로드란 인류가 예부터 이용해온 원거리 무역로

는 트란스옥시아나(Transoxiana) 지역과 서북 인도로 수출된 주요 물품이 비단이었던 사실을 감안해 이 교역로를 독일어로 ‘자이덴슈트라쎄(Seidenstrase)’라고 명명하였다. 정수일, 『실크로드학』, 창작과 비평사, 2001, 35쪽 참고.

2) 정수일, 「실크로드의 새롭고 바른 이해-개념과 그 확대를 중심으로」, 2015. 외대 ‘실크로드의 세계’ 강의내용 참고.

와 문명교류의 통로에 대한 상징적 명칭인 것이다.....문명은 정형화된 구조이면서 변화 이동하는 과정으로서 그 공간적인 변화 이동이 곧 교류이며, 교류의 길이 바로 실�크로드 개념 확대이다. 또한, 부단히 확장 정비되어 온 실�크로드가 포괄하는 공간적 범위와 그 기능에 대한 인식의 심화를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실�크로드는 2~3만년전 인류의 이동과 더불어 개척되기 시작했지만, 그 실재를 알아낸 것은 불과 120여년전이다....비록, 해로의 단선적 연장이라는 하지만 분명히 문명교류의 통로는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이어졌으며, 실�크로드의 개념은 구대륙의 한계를 벗어나 전지구를 망라하는 환지구적인 통로로 확대되었다.....실�크로드의 개념 확대는 실�크로드라는 통로의 단선적(單線的)인 연장뿐만 아니라, 복선적(複線的) 내지 망상적(網狀的) 확대를 뜻한다.”³⁾

이와 같이 그는 실�크로드에 대한 정의에서, 공간적인 면에서 ‘복선적 내지 망상적’이라는 확대와 기능적 인식의 면에서 문명교류라는 확대를 나타내 주었다. 또한, 바다의 일체성과 연속성이라는 특징을 들어 구대륙과 신대륙을 잇는 해상실�크로드의 환지구성을 강조하였고, 현대에서는 실�크로드의 범주를 광의의 개념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실�크로드에 대한 담론은 범위에 있어서 지역적인 성격을 띤 ‘초원로’와 ‘오아시스로’를 넘어 환지구성을 갖는 ‘해상실�크로드’까지 현재 그 영역을 확대하여 재조명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는 각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1990년대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1987년 한국 돈황학회가 창립되고 1996년 ‘중양아시아학회’ 성립과 함께 문학·역사·미술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연구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2006년에는 ‘한국문명교류연구소’가 설립되어 실�크로드와 문명교류와의 불가분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 경상북도는 2008년부터 경주의 유물유적을 중심으로 중국·중양아시아와의 실�크로드상의 교류에 대해 조심스럽게 추적하고 있고, 각 대학에서도 이러한 연구 분위기가 활성화되고 있다.⁴⁾

3) 정수일, 『실�크로드학』, 창작과 비평사, 2001, 17-31쪽 참고.

4) 현재 실�크로드 관련 연구소는 ‘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소(1983), 한국해양대학교 국

본 논문은 이러한 일련의 실크로드 연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여, 한국에서의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현황을 분석하고 향후의 전망을 논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에서 실크로드 연구가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며, 다음으로 현재까지의 연구기간을 시기별로 나누어 각 시기마다의 연구경향과 특징을 분석해 볼 것이다. 또한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통해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를 ‘실크로드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볼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관련 학자들의 연구 동기를 가속화시키고, 나아가 실크로드학 연구의 좌표를 설정하는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현황

한국에서의 실크로드에 대한 관심은 195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54년 大韓蠶絲會에서 발행한 『실크로드』라는 이름의 정기간행물을 시작으로, 비록 내용면에서는 초보단계에 불과했으나 실크로드에 대한 기존 개념인 육로 루트를 소개한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실크로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 후, 10년이라는 공백기를 깨고 1965년 金震鏞의 「실크로드의 어제와 오늘」에서 실크로드가 소개되었고, 高柄翊의 『동아교섭사의 연구』가 1970년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은 한국을 중심으로 하되 중국·몽고·인도·이슬람 등 아시아 세계의 교섭사 분야의 논문집이다.

1978년에는 徐景洙의 「실크로드 源脈을 따라서」가 중앙일보사를 통해 기

제해양문제연구소(200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돈황학센터(2009),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유라시아 실크로드 연구소(2014), 계명대학교 실크로드중앙아시아연구원(2014), 한국외국어대학교 실크로드 연구센터(2014)가 있다.

사로 소개되었고, 1979년 金種玉이 편찬한 『모던 실크로드를 달린다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 타일랜드 · 네팔 · 인디아 篇)』가 사진기행 서적으로 나오게 된다. 3권의 시리즈로 구성된 이 책은 원래 같은 해에 경향신문을 통해 기획 연재되던 중, 사진과 함께 소개된 역사 문화교류의 내용 구성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책으로 편찬하게 된 것이다. 해외여행이 많지 않았던 그 당시의 한국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실크로드상의 국가에 대한 소개는 대중들에게 실크로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

실크로드와 관련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에 이르러 여러 방면의 학계에서는 ‘실크로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2000년대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실크로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의 국회도서관과 한국 학술지 검색 사이트인 KISS, DBpia에서 1951년부터 현재까지의 실크로드 관련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의 분량과 연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점진적 발전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초기 한국에서의 실크로드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미미하였으나, 점차 실크로드에 대한 여러 분야의 저술이 나오고, 그에 따른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해방 후 지금까지 60여 년간을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1951년~1990년을 제1기로, 1991년~2005년을 제2기로, 2006년~현재를 제3기로 하고, 각 시기 동안의 연구 성과를 저서·학술논문·학위논문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시기에 발표된 논문과 저술 그리고 주요 연구자를 정리하고, 각 시기의 주 연구영역과 연구 논점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1) 제1기 (1951년-1990년)

제1기는 실크로드 연구에 대한 ‘발아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총 9편의 학술논문과 20권의 저서가 발표되었다. 주요 연구자로는 고병익, 김진광, 임

효재, 서경수, 조성을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실크로드를 통한 고대 역사나 문화에 대한 고찰에 집중되어 있다.

1950년대 실크로드에 대한 첫 정기간행물로는 大韓蠶絲會에서 1954년도에 창간한 『실크로드』⁵⁾가 있다. 이 창간호에는 한국 잠사업의 생산기술에 대한 소개 및 잠사업의 현재와 미래의 전망, 그리고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해외의 잠사업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실질적인 실크로드 실체에 대해서는 1965년 『실크로드』6호에 김진광의 「실크로드의 어제와 오늘」이 소개되었다.

초기 실크로드 연구자 중 고병익⁶⁾ 선생을 대표 연구자로 들 수 있다. 고병익은 광복 후 중국사 연구의 1세대 학자로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전통 연구에 주력하였다. 실크로드를 통한 동아시아 역사학의 근대화를 이끌었다. 1970년 발행된 『동아교섭사의 연구』는 중앙아시아 지역 연구와 ‘몽골-고려’ 관계뿐만 아니라 삼국사기, 계림유사, 표해록 등 한국사 분야 논문도 포함되어 있어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큰 거목이 되고 있다. 그 밖에 1984년 동아일보사에서 발행된 저서 『혜초의 길따라』는 고병익 선생이 직접 혜초의 길을 따라 중국과 인도 대륙의 동서남북을 탐방하면서 지은 책이다. 이와 같이 그의 저서들은 동아시아의 역사를 통해 실크로드를 재조명할 수 있는 根幹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제2기 (1991년-2005년)

제2기는 한국의 실크로드 연구에 대한 ‘발전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5) 『실크로드』(1954)는 현재 제62권(통권 제 542호, 2015년 여름호)까지 발행되어 왔다.

6) 고병익(高柄翼, 1924-2004): 역사학자. 1979년 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아시아의 역사상(歷史像)』(1969), 『동아교섭사의 연구』(1970), 『동아시아(東亞史)의 전통』(1976), 『동아시아의 전통과 근대사』(1984), 『동아시아사의 전통과 변용』(1997) 등이 있고, 수필집으로 『망원경』(1974)과 『선비와 지식인』(1985), 『세월과 세대』(1999) 등이 있다.

연구된 학술논문으로는 총110편이며, 학위논문은 2편, 저서로는 총67권이 있다. 제1기와 비교할 때 연구 수량이 확연히 많아졌다. 또한, 실�크로드 연구 범위가 역사와 문화에 한정되어 있던 제1기와는 달리, 이 시기부터는 음악·미술·건축 등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무역 등 분야에까지도 상당히 다양화되고 실�크로드의 무대가 육로에서 해상으로도 확대된 시기이다. 주요 연구자로는 전인평, 김성곤, 문병대, 최재수, 정수일, 권영필, 장병욱, 홍주희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실�크로드와 연계학문을 접목시킨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 시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크로드에 대한 이론정립을 들 수 있다. 정수일⁷⁾은 학문으로서의 실�크로드를 연구하고자 주력을 다한 학자이다. 그에게는 「고구려와 서역 관계의 고찰」(2002)·「혜초의 서역기행과 『왕오천축국전』」(2004) 두 편의 학술 논문과, 『실�크로드학』(2001)·『고대 문명의 교류사』(2001)·『문명의 루트 실�크로드』(2002)·『문명교류사 연구』(2002)·『혜초의 왕오천축국전』등 실�크로드와 한국의 관계를 논한 저서가 있다. 논문보다는 주로 단행본 위주로 저술 활동을 하여 제3시기로 이어지는 현재까지도 실�크로드 관련 전문도서를 많이 편찬하였다. 그는 실�크로드를 ‘실�크로드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부단히 연구해 왔으며, 특히 『고대 문명의 교류사』·『문명의 루트 실�크로드』는 실�크로드가 문명교류의 중요한 상징임을 근거로 한 저서이다. 또한, 『실�크로드학』에서는 실�크로드를 전통적 실�크로드와 新실�크로드로 나누어 개념이 정리되었으며, 실�크로드 3대간선인 초원로, 오아시스로, 해로 中 해상실�크로드의 환지구성을 통해 범지구적인 실�크로드의 범위 확대를 시도하였다. 실제 해상실�크로드를 소개하는 저서로 양승윤의 8인의 『바다의 실�크로드』가 출간되었는데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걸프해,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주요거점지를 중심으로 한 해상의 교역로를 새로운 실�크로드길로 탐구한 저서다.

둘째, 미술과의 연계 학문으로서 권영필⁸⁾은 「돈황 벽화 연구 시탐」(1992)

7) 정수일(鄭守一, 1934-현재)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 前 단국대학교 사회학교수.

8) 권영필(권영필, 1941-현재) 미술사가. 상지대학교 교수. 前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제1대 중앙아시아학회 회장(1996).

· 「한국의 중앙아시아 연구의 과거와 현재」(2001) 등 5편의 학술논문과, 『실크로드 미술』(1997) · 『동쪽으로 불어온 실크로드 바람 上·下』(2002) · 『렌투스 양식의 미술』(2002) 등의 관련도서 6권이 있다. 『실크로드 미술』에서는 중앙아시아에서 한국까지 실크로드 미술을 살핀 연구서로 소박주의 미학을 위한 프렐류드, 중앙아시아의 회화에 나타난 산수요소의 원류와 그 발달 등 실크로드 미술 전반을 풍부한 그림, 사진과 함께 소개되었다. 그는 실크로드에 남겨진 동서 교류의 흔적을 밝히는데 기여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실크로드의 연계 학문으로서 돈황 미술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

셋째, 실크로드와 음악의 교차연구에서 전인평⁹⁾은 「실크로드 음악의 아름다움」(1991), 「돈황 벽화에 그려진 여러 악기의 전래」(1991), 「우리 음악의 새로운 근원을 찾아- 실크로드의 음악과 사람들」(1991) 등 15편의 논문과 『실크로드 음악과 한국음악』(2001), 『실크로드, 길 위의 노래』(2003) 등 8권의 저서를 내놓았다.¹⁰⁾ 전인평의 『실크로드, 길 위의 노래』는 실크로드 선상에 놓인 나라들의 주요 음악을 소개하고 그 나라의 인심이나 풍습, 생활을 솔직하게 표현하였다.¹¹⁾ 그 밖에 1991년에 발표한 「돈황 벽화에 그려진 여러 악기의 전래」에서는 돈황 벽화 음악 자료로 실크로드를 통해 전파된 악기를 고찰한 것으로, 악기의 전파는 음악의 전파도 함께 수반하게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에 대해 고증해주었다.

넷째, 문학, 종교, 통상, 정치, 건축 등 다양한 연계 연구 성과가 있었다.

문학과 관련되어서는 실크로드의 중요지역인 돈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한국 돈황문학연구의 회고와 전망」¹²⁾에 따르면 1991년~2010년까지 발

9) 전인평(전인평, 1945-현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실크로드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음악평론가협회 부회장, 아시아음악학 회장.

10) 본 논문편수와 단행본 권수는 저자의 여러 저술서 가운데, 실크로드와 관련된 것만 참고하였다.

11) 또한, 한국에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여민락”이라는 곡을 작곡했는데, 이 곡이 실크로드의 음악이라는 사실도 독자들에게 큰 흥미를 주었다. 이는 곧 중국 음악은 서역 음악, 즉 실크로드 음악의 영향을 받아 주변국인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된 것을 말한다.

표된 돈황 문학관련 논문과 저서가 85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돈황을 통한 실크로드 문명교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연구의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종교와 관련한 연구로 이병섭의 「고대한반도에 전래된 초기그리스도교에 관한 연구: 해상실크로드와 육상실크로드를 중심으로」(2001)와 조용성의 「실크로드지역 선교 현황과 전략적 배치에 대한 연구:GMS 중심으로」(2004) 등의 학위논문이 있다.

통상과 관련해서는 조규진의 「실크로드의 역사와 이의 국제통상학적 의미」(2003)의 5편, 국제정치로는 장병옥의 『중앙아시아 국제정치의 의해』(2001) 등이 있다.

건축과의 교차연구로는 김성곤의 「실크로드와 한반도의 건축문화」(1997)의 7편의 학술 논문이 있으며, 특히, 이시기에는 ‘철의 실크로드’라는 주제로 연구된 유라시아 철도 구축이나 운송 루트에 대한 학술논문도 적지 않았다.

3) 제3기(2006년-2015년 현재)

제3기는 한국의 실크로드 연구에 대한 ‘정착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학술논문으로는 총252 편이며, 학위논문은 총4 편, 단행본으로는 총92 권이 있다. 제3기 10년 동안의 연구 성과는 그야말로 괄목상대이다. 수량면에서도 제1기 40년과 제2기 15년 동안의 연구량을 합한 수의 2배나 되며, 연구범위 또한 제2기의 여러 학문범주를 기반으로 상당히 확대·발전되었다. 즉, 실크로드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되고, 실크로드학으로서의 정착을 위한 담론이 조성되고 있다.

제2기에 이어 이 기간에도 실크로드학의 이론 정립에 정수일 선생의 활약이 돋보인다. 그는 『실크로드 문명기행』(2006)·『문명담론과 문명교류』(2009)·『초원 실크로드를 가다』(2010)·『실크로드사건』(2013)·『해상실

12) 김현주, 「韓國燉煌文學研究的回顧與展望」, 『燉煌學』第30輯, 臺灣南華大學, 2013, 49-50 쪽.

크로드사전』(2014)·『실크로드, 길 위에서 길을 보다』(2014)·『실크로드 도록:해로편』(2014) 과 같은 저서를 출판하였다.

『실크로드사전』은 단순히 단어의 언어적 풀이를 하는 사전(辭典)이 아니라 실크로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기술을 통해 실크로드와 문명교류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사전(事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실크로드의 역사, 지리, 인문, 종교, 사상, 교역 등을 상세히 정리한 대작으로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 실크로드 연구에 매우 중요한 공구서라고 할 수 있다.¹³⁾

곧이어 나온 『해상실크로드 사전』에서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해로에 주목하여 그간 온갖 설만 분분했던 해상 실크로드 개념을 학문적 체계로 세우고자 하였다. 본 사전은 119개의 범지구적 인 거점항구를 나타내는 표제어와 해상 실크로드와 관련된 621개의 어휘들을 표제어로 삼았으며, 현장 사진자료도 함께 실고 있다. 그는 삼면이 바다인 한국에게 해양국은 숙명과도 같으며 그만큼 깊은 해양지식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그의 일련의 저서들은 실크로드를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시키는데 큰 힘을 실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정수일은 실크로드의 동단을 한국 경상북도 경주라고 보았으며¹⁴⁾, 이를 계기로 지방 정부에서는 연구 및 탐험 등 실크로드 관련 활동을 해오고 있다.¹⁵⁾

제3기는 괄목할만한 연구 성과가 있었고, 연구량도 많아 졌던 만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첫째, ‘해상실크로드’에 대한 개념과 범위의 확대이다.

최근 중국이 제시한 이른바 ‘21세기 해상실크로드’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범지구적 대전략구상으로 유라시아를 겨냥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즉 ‘실크로드 경제대(經濟帶)’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라는 어마어마한 宏圖를 공식 선포한데 이어, 라틴 아메리카와의 관계도

13) 『실크로드사전』은 현재 영문판 번역이 진행되고 있다.

14) 정수일, 「실크로드의 새로운 이해」, 『e-Eurasia』 vol.19, 2009. 2쪽.

15) 경상북도에서는 실크로드 학술대회, 실크로드 탐사 등을 해왔으며, 2015년 8월 21일부터 59일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실크로드 경주 2015’가 개최될 것이다.

결코 이에 못지않은 차원에서 ‘ 전면적 동반관계(全面的伙伴關係)와 운명공동체(運命共同體)로 격상시키고, 어마어마한 규모와 속도로 그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은 시진핑(習近平)주석을 비롯한 중국 국가 최고 지도자들에 의해 직접 선포되고, 그들의 진두지휘 하에 가시화됨으로써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그 실현은 국가적·지역적 범위를 벗어난 세계의 정세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¹⁶⁾ 그러다보니, ‘東西의 交流路’로써 최근 해상실크로드가 새롭게 급부상되면서, ‘환지구성’이라는 성격으로 그에 대한 범위 또한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른 연구 범위도 다양화·전문화 되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해상 실크로드’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시도되지 않은 채 여러 분야에서 하나의 유행처럼 ‘실크로드’와 연관시켜 각자의 관점을 설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태도는 근거가 부족함으로 타당성 있는 접근과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실크로드의 학문적 정립을 위한 연구가 정착되었다.

그 동안 고병익, 정수일 등 소수 학자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던 ‘실크로드학’에 많은 연구 종사자들이 나왔다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실크로드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장기간의 담론을 통해 학문으로서의 실크로드를 연구하고, 그 개념에 근거하여 여러 분야에서 교차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철의 실크로드’에 관한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있었다.

주로 경제·무역·물류·운송·교류 등의 분야에서 ‘철의 실크로드’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철의 실크로드’는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한반도중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계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중국·몽골로 이어지는 ‘범동북아철도운송망’을 구축, 또한 시베리아 철도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것으로 범위의 확대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철로와 관련되어서는 주로 ‘국토연구원’이나 ‘한국철도학회’에서 연구하였

16) 정수일, 「해상실크로드의 환지구성문제를 논함-중국의 ‘21세기 해상실크로드’예를 중심으로」, 2015, 대만중앙연구회의 학술회 발표 논문.

으며, 경제·무역 등의 교류 측면의 연구 소재로도 다루어졌다.

넷째, 역사기행이나 문명·문화 관련된 책들이 많이 출판되었다.

이는 최근 2,30년간 실크로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민간의 관심도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 기행이나 문명·문화의 내용은 실크로드를 보편화하기에 비교적 적합했을 것이다.

3. 연구전망

이상으로 한국에서의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 추이를 3 分期로 살펴보았다.

제1기인 1951년부터 1990년까지의 40년간은 ‘발아의 시기’로 고병익을 중심으로 실크로드를 통한 역사나 문화에 대한 고찰이 주류를 이루었다.

제2기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의 15년 동안으로 예술·경제·무역 분야에까지 실크로드가 기존의 학문과 연계되어 접근·연구됨으로서 연구 내용이 다양화되는 특징이 있었고,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제3기는 2006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로 범위와 연구량에 있어서 연구 성과의 발전을 이룬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국제 교류나 무역, 운송과 관련되어 ‘철의 실크로드’나 ‘해상실크로드’가 강조되었다. 이는 초국가적, 초지역적 글로벌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계 학문으로서가 아닌 ‘순수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가 발표됨으로써 실크로드학에 대한 학문적 확립이 이루어져 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간의 많은 연구 실적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 주제가 어느 정도 다양화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실크로드에 대한 정의나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이에 대해 각 나라마다 그리고 학자들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실크로드라는 개념에 각 나라별 주관적인 관점이 조금씩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

를 들면, 범위만 보더라도 한국에서는 정수일 선생이 ‘한반도 연장설’을 내놓으며 실크로드의 연장선을 한반도까지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실크로드 연장선에 대한 동방의 종점을 일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각각의 이견들을 보이고 있다.¹⁷⁾

한국에서 실크로드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연구가 향후 진정한 실크로드학으로 정착되어 각 지역 간 문명교류의 증대한 원칙과 정신으로 인식되어지는데 일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한국에서의 실크로드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아래 몇 가지 관점에서 더욱 보장되고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실크로드학’으로서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실크로드에 대해 많은 연구 실적을 보였지만, ‘실크로드학’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연구 종사자들은 국제적인 학문 교류를 통하여 실크로드의 개념을 확립하고 실크로드학의 범위와 실크로드 연장선의 범위 등을 하나로 정립하여야 한다.

둘째, 연구범위와 연구방법의 다양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2기와 제3기의 자료를 살펴볼 때, 실크로드와의 연계학문으로서는 어느 정도 다양성을 보여주었지만, 아직까지는 연구 학문이 대체로 역사, 예술, 문화 교류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실크로드 도시학’이나 ‘실크로드와 에너지 정책’ 등 연계학문의 범위가 더욱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문, 정책, 사회에 대한 각 국가 간 교류방법을 폭넓게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실크로드와 한국’이라든지 ‘한국 실크로드와 타국 실크로드’ 등의 연구방법을 통한 교류를 들 수 있다.

17) 그 밖에 정수일 선생님은 중국의 해상실크로드의 영역에도 이견을 제기하였다. 중국이 주로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동안까지를 망라하는 지구의 동반구(東半球)를 대상으로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란 전략구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수일 선생님은 해상 실크로드의 환지구성을 생각할 때, 서반구를 포함한 범지구적 구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셋째, 연구지변이 확대 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연구된 자료를 살펴보면, 실크로드만을 연구한 학자이든 연계학문으로 실크로드를 연구한 학자이든 실크로드 연구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크로드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크로드를 전문적이면서 지속적으 연구하는 학문 종사자들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그들 간의 학술대회와 세미나를 통한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실크로드에 대한 바른 이론을 체계화하여야 한다. 또한, 실크로드상의 국가나 지역에 관한 꾸준한 탐사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과 새로운 연구 방법을 통해 한층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크로드학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크로드학은 특정한 나라에 한정되어진 학문이 아니므로 여러 나라 또는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 기간과 방대한 연구를 필요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상북도는 최근 경주를 실크로드의 연장선상에 놓고, 2008년부터 매년 지속적이고 다양한 학술 활동과 인문교류 행사를 개최 및 지원하고 있다. 정부기관, 학술단체 및 문화단체의 상호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런 활동은 실크로드에 대한 학문의 범위를 다양화하고 연구 종사자를 확대함으로써 실크로드 연구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더불어, 2015년 8월에는 40여개국이 참가한 ‘실크로드 경주 축전’이 2개월간 개최되었고, ‘실크로드중앙아시아연구원’, ‘실크로드 연구센터’, ‘실크로드영상연구원’ 등의 관련 연구기관들이 실크로드에 대한 학문 연구를 위해 신설되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실크로드 연계 국가와 기관들의 지속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 및 학술활동은 앞으로 한국에서의 실크로드학을 확립시키고 학문적 연구를 발전시켜나가는데 상당한 활력을 줄 것이다.

參考文獻

- 金種玉, 『모던 실�크로드를 달린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타일랜드·네팔·인디아 篇)』, 한국사진기행, 1979.
- 고병익, 『동아교섭사의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0.
- 고병익, 『혜초의 길따라』, 동아일보사, 1984.
- 권영필, 『실�크로드 미술』, 열화당, 1997.
- 정수일, 『실크로드학』, 창작과 비평사, 2001.
- 정수일, 『고대 문명의 교류사』, 사계절 출판사, 2001.
- 전인평, 『실�크로드 음악과 한국음악』, 아시아음악학회, 2001.
- 장병옥, 『중앙아시아 국제정치에 의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1.
- 정수일, 『문명의 루트 실�크로드』, 효형출판사, 2002.
- 권영필, 『렌투스 양식의 미술』, 사계절 출판사, 2002.
- 양승윤외 8인, 『바다의 실�크로드』, 청아출판사, 2003.
- 전인평, 『실�크로드, 길 위의 노래』, 소나무, 2003.
- 정수일,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학고재, 2004.
- 김학주외, 『실�크로드의 예술』, 박이정, 2008.
- 정수일, 『실�크로드사전』, 창작과 비평사, 2013.
- 정수일, 『해상실�크로드 사전』, 창작과 비평사, 2014.
- 전인평, 「실�크로드 음악의 아름다움」, 『음악평론』 제5권, 1991.
- 전인평, 「우리 음악의 새로운 근원을 찾아- 실�크로드의 음악과 사람들」, 『객석』 83號, 1991.
- 권영필, 「돈황벽화 연구방법 시탐」, 『미술사학』 제4권, 1992.
- 김현주, 「비단길 위의 돈황과 돈황학; 돈황의 민가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第8輯, 1994.
- 金晟坤, 「실�크로드와 한반도의 건축문화」, 『建築』 第41卷, 1997.
- 정수일, 「고구려와 서역 관계의 고찰」, 『高句麗研究』 第14輯, 2002.
- 조규진 「실�크로드의 역사와 이의 국제통상학적 의미」, 『마케팅』 第37卷, 2003.

정수일, 「혜초의 서역기행과 『왕오천축국전』, 『韓國文學研究』 第27卷, 2004.

김현주, 「韓國燉煌文學研究的回顧與展望」, 『燉煌學』 第30輯, 臺灣南華大學, 2013.

정수일, 「실크로드의 새롭고 바른 이해- 개념과 그 확대를 중심으로」, 외대 '실크로드의 세계' 강의 원고, 2015.

Abstract

The status and prospect on the study of the Silk road in Korea

Kim, Hyun-ju · Bae, Gyoung-jin

This report has examined the major scholars and the studies about the status done on the research for the Silk road, which has been divided into three periods.

In consequence of checking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earch engines “DBpia” and “KISS”, we could understand that the study had started from the consecutive publication named 『The Silk Road』.

Accordingly, we consider that the starting point of the study is the 1950s in Korea and classify the time into the 1st period(germinal stage) by 1990, the 2nd from 1990 to 2005 whose amount of the study grew rapidly and then the 3rd from 2006 till now. These periods have the below characters respectively.

The main current in the 1st period is the study on the history and culture through the Silk road, which is headed by Dr. Go Byeong-ik, the president i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2nd period, the Silk road is connected to the existing studies like the fields of art, economy and trade and researched. There are much diversification and achievement on the studies despite the short span of 15 years during this time.

In the 3rd period, the range and the quantity on the studies are advanced.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exchange, trade and transportation, ‘the Iron Silk road’ or ‘the Marine Silk road’ is emphasized specially in this time, whose significance is on the super-national and azonic globalization. And, we understand there is the academic achievement not by related science but by genuine science regarding the study for the Silk road.

Finally, we suggest that the various approach, constant question raising and profound study should be done, the genuine science be established on the Silk road henceforward and it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for the key principle and major spirit about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regions. For this, we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the genuine science is needed on the study about the Silk road and the diversity on the range and means must be searched for the study persistingly in the future.

Key words : Silk road, Marine Silk road, globalization, cltural exchange.

투 고 일 : 2015. 9. 10. / 심 사 일 : 2015. 9. 15.~ 2015. 10. 15. / 게재확정일 : 2015. 10. 16.